

#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 Global SME Policy Trend

- 📍 **스페셜리포트** 스웨덴 · 핀란드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 **해외동향** 미국 중소기업청, 2018회계연도에 소액대출 프로그램 통해 7,680만 달러 대출 (등 14건)
- 📍 **주요일정** Small Business Expo (미국 시카고, 2019.6.20) (등 6건)







## 목 차

### I. 스페셜리포트

스웨덴·핀란드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    |
|-----------------------------------|----|
| 요약 .....                          | 1  |
| 1. 혁신국가로 부상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      | 2  |
| 2. 스웨덴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 4  |
| 3. 핀란드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 10 |
| 4. 결론 및 시사점 .....                 | 16 |
| 〈참고〉 핀란드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 | 17 |

### II. 해외동향

#### 〈미국〉

1. 미국 중소기업청, 2018회계연도에 소액대출 프로그램 통해 7,680만 달러 대출 .. 18

#### 〈영국〉

1.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2021/22회계연도 중소기업 지출 비중 33%로 확대 ... 19
2. 영국, 혁신여성(Women in Innovation) 캠페인 통해 여성 혁신가 지원 ..... 20
3. 영국, '17~'18년 12개월간 490만 명의 일자리 이동 발생 ..... 21

#### 〈유럽〉

1. 유럽 중소기업, 디지털 플랫폼 기회 포착 위해 혁신 추진 ..... 22



## 목 차

### 〈일본〉

1. 일본 중소기업, IoT를 활용해 서비스화 추진 ..... 23
2. 일본 중소기업, 건강경영을 조직개혁 시책의 하나로 인식해야 ..... 24
3. 일본, 오사카지역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과제 및 방향성 ..... 25
4. 일본, 중소기업의 최대 과제는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 26
5. 일본, 중소기업 고용자 중 50/60대 비중은 35% ..... 27

### 〈중국〉

1. 중국, 민영·소규모 영세기업 적자 기업 증가 ..... 28
2. 중국,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발표 ..... 29

### 〈기타〉

1. 2019년 혁신기업, AI 및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사용 ..... 30
2. OECD, 중소기업의 다양한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확대 ..... 31

## Ⅲ. 주요일정

1. MONEY20/20 EUROP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9.6.3.~5) ..... 32
2. Startup Grind Europe (영국 런던, 2019.6.6) ..... 32
3. Techsylvania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2019.6.8.~11) ..... 32
4. Future of Fintech (미국 뉴욕, 2019.6.11.~13) ..... 33
5. Launch Festival Sydney 2019 (호주 시드니, 2019.6.17.~19) ..... 33
6. Small Business Expo (미국 시카고, 2019.6.20) ..... 33

## I

## 스페셜리포트



## 스웨덴·핀란드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요 약

- EU 회원국의 혁신 활동을 평가한 결과 스웨덴, 핀란드가 상위 순위를 차지
  - 혁신성과 점수를 기준으로 EU 28개 회원국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할 경우 스웨덴과 핀란드는 혁신 리더그룹에 속하며, 28개국 중 스웨덴은 1위, 핀란드가 3위를 기록
  -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전세계 1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도 스웨덴은 7위, 핀란드는 12위를 차지
- 스웨덴은 2017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 스웨덴은 인구 1백만명 당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5.52개로 룩셈부르크(14.9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
  - 스웨덴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ICT 산업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이며, STING(Stockholm Innovation & Growth, STING)과 움살라 혁신 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 UIC)가 스타트업을 지원
  - 스톡홀름은 인구 백만명 이하인 소규모 도시이지만 실리콘밸리를 제외한 창업생태계 중 인구당 가장 많은 유니콘을 배출
  -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을 연구·혁신부문의 세계적 선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하에 스웨덴 혁신청(VINNOVA)을 통해 혁신기업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
- 핀란드는 연구와 혁신 분야에 GDP의 2.7%(2017년 기준)를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 유럽의 혁신 리더로 선정
  - 핀란드에서는 매년 4천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3년간 고성장을 달성한 300~400개의 성장 스타트업(growth startup)이 발전
  - 그레이터 헬싱키 지역에는 게임, 인공지능, 헬스 및 생명과학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설립
  -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는 가장 대표적인 혁신 지원 기관으로, 향후 정부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스템의 명확화·간결화 목표를 지원하고, 핀란드 혁신 시스템의 세계화를 강화하며, 핀란드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2020년까지 2배 확대할 계획
- 스웨덴과 핀란드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산학관 협력에 있다고 평가

## 【원 문】

- Startup Genom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8, 2018.8

## ① 혁신국가로 부상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국가 중에서도 혁신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혁신성과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는 혁신리더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8개 회원국 중 스웨덴은 1위, 핀란드가 3위를 기록하였음
    - 반면, 일반적으로 혁신활동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던 독일은 인적자원, 연구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EU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아 혁신 리더그룹에서 혁신 우위그룹으로 내려앉았음

〈표 1〉 EU 회원국의 혁신성과기준 그룹 구분

| 혁신 리더그룹                              | 혁신 우위그룹                                | 일반 혁신그룹                                                                                     | 후발 혁신그룹    |
|--------------------------------------|----------------------------------------|---------------------------------------------------------------------------------------------|------------|
| 스웨덴, 덴마크,<br>핀란드, 네덜란드,<br>영국, 룩셈부르크 | 독일, 오스트리아,<br>벨기에, 아일랜드,<br>프랑스, 슬로베니아 | 체코공화국, 포르투갈, 에스토니아,<br>리투아니아, 스페인, 몰타, 이탈리아,<br>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그리스,<br>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 불가리아, 루마니아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8, 2018.6

주 : EU 28개 회원국의 평균값을 100%로 할 때, 120% 초과는 혁신 리더그룹, 90~120%는 혁신 우위그룹, 50~90%는 일반 혁신그룹, 50% 미만은 후발 혁신그룹으로 구분

-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전세계 1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한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평가 점수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로 스웨덴은 7위, 핀란드는 12위를 차지하였음
    - \* 정량적 평가는 스타트업,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 space),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스타트업 영향력 보유자(global startup influencer) 및 스타트업 이벤트 수를 종합해 이루어짐
    - \* 정성적 평가는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큰 영향(dent)을 미쳤는지를 종합해 이루어짐
    - \*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World Bank Doing Business Report)와 같은 자료를 이용함

〈표 2〉 글로벌 스타트업 순위

| 순위 | 국가   | 순위 변동<br>(2017년 대비) | 정량적 점수 | 정성적 점수 | 비즈니스 점수 | 총점     |
|----|------|---------------------|--------|--------|---------|--------|
| 1  | 미국   | -                   | 12.29  | 22.02  | 9.78    | 44.090 |
| 2  | 영국   | -                   | 1.86   | 5.10   | 9.76    | 16.719 |
| 3  | 캐나다  | -                   | 1.24   | 5.10   | 9.54    | 15.867 |
| 4  | 이스라엘 | -                   | 0.35   | 5.21   | 9.07    | 14.626 |
| 5  | 호주   | +6                  | 0.64   | 2.71   | 9.61    | 12.953 |
| 6  | 네덜란드 | +9                  | 0.34   | 3.27   | 9.29    | 12.907 |
| 7  | 스웨덴  | -1                  | 0.19   | 2.87   | 9.71    | 12.774 |
| 8  | 스위스  | -                   | 0.21   | 3.06   | 9.26    | 12.527 |
| 9  | 독일   | -4                  | 0.71   | 2.25   | 9.50    | 12.461 |
| 10 | 스페인  | +4                  | 0.58   | 2.42   | 9.40    | 12.396 |
| 11 | 프랑스  | -2                  | 0.50   | 1.59   | 9.36    | 11.451 |
| 12 | 핀란드  | +7                  | 0.11   | 1.63   | 9.62    | 11.366 |
| 19 | 한국   | -2                  | 0.07   | 0.97   | 9.43    | 10.467 |
| 23 | 일본   | -3                  | 0.14   | 0.72   | 9.24    | 10.103 |

자료 : StartupBlink Ecosystem Ranking Report 2019

- '17년 EU 국가들의 R&D 집약도 평가에서도 스웨덴이 가장 높은 3.3%를 기록했으며, 핀란드도 2.76%로 5위를 기록하였음<sup>1)</sup>
  - '07년과 '17년을 비교할 경우 스웨덴의 R&D 집약도는 3.25%에서 3.33%로 상승한 반면 핀란드는 3.35%에서 2.76%로 낮아졌음
    - R&D 지출금액을 보면, 스웨덴은 116.1억 유로에서 158.1억 유로로 증가한 반면 핀란드는 62.4억 유로에서 61.7억 유로로 소폭 감소하였음

1) Eurostat, R&D expenditure in the EU increased slightly to 2.07% of GDP in 2017, 2019.1.10

## ② 스웨덴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스웨덴은 2017년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음<sup>2)</sup>
  - 스웨덴은 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함
  - 스웨덴의 혁신적 환경, 강한 국제적 연결고리, 뛰어난 인재 등의 요소가 수도인 스톡홀름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에서 1인당 ‘유니콘’이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는데 기여함
  -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의 3.25%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임<sup>3)</sup>
- 스웨덴은 인구 1백만명 당 스타트업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5.52개로 룩셈부르크(14.9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함
  - 스웨덴의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sup>4)</sup>지수는 7.3으로 유럽 국가 중 4위를 차지함
    - 스웨덴보다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9.9%, 스위스 8.5%, 영국 8.4% 등이며, 독일은 5.3%를 기록함
  - 스타트업 수는 해마다 전체 기업의 7%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16년에는 7만여 개로 전체 기업(약 100만 개)의 7%였으며, ‘17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6만 8,113개였음<sup>5)</sup>
- 스톡홀름은 인구 백만명 이하인 소규모 도시이지만 실리콘밸리를 제외한 창업생태계 중 인구당 가장 많은 유니콘을 배출하고 있음
  - 스톡홀름 지역 근로자 중 18%는 하이테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0개 중 5개는 스톡홀름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유럽의 하이테크 관련 업무 종사자 비율은 평균 10% 정도임
  - 스톡홀름은 북유럽 국가 인구의 단지 4%에 불과하지만 ‘16년 북유럽 국가에 투자된 자본의 54%를 유치하였음

2) EU집행위원회, 2018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 및 한국과의 협력 활동, 2019.1.25

3) Eurostat 2018

4) 18~64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창업 42개월 이하인 스타트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창업 단계에 있는 인구 비중

5) Kotra, 스웨덴 창업환경, Vinnova에 묻다, 2018.10.26

- 스톡홀름에는 게임, 핀테크, 청정기술 등의 분야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배출되고 있음
  - (게임) 스톡홀름은 캔디 크러쉬(Candy Crush), 마인크래프트(Minecraft) 및 배틀필드(Battlefield) 시리즈와 같은 국제 게임 성공 스토리의 본거지임
    -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게임산업과 함께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인구당 비디오 게임 스튜디오가 두 번째로 집중된 지역임
    - 2017 게임 개발자 지수(2017's Game Developer Index)에 의하면 그레이터 스톡홀름(Greater Stockholm) 지역의 123개 기업이 2,500명 정도의 게임 개발자를 고용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킹(King), 모장 및 패러독스 인터랙티브(Mojang and Paradox Interactive)와 같은 거대 게임회사부터 라이온바이트 게임즈(Lionbite Games)와 팻샤크(Fatshark)와 같은 소규모 독립 스튜디오까지 다양함
  - (핀테크) '12~'17년 동안 지역 벤처캐피탈 투자의 21%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이루어졌음
    - 생태계에는 클라르나와 같은 대규모 성공적인 핀테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클라르나는 가맹점 및 쇼핑객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이미 6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 모바일 결제회사인 아이제틀(iZettle)은 3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조달함
    - 이 부문에는 '15년 이후 연간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음
    - '17년에는 2명의 신흥 플레이어가 각각 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는데, 톱크(Tink)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모든 카드와 은행계좌를 연결할 수 있는 앱이고, 콰피탈(Qapital)은 고객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개인 बैं킹 앱임
  - (청정기술) 스톡홀름시 정부의 공식 목표는 '40년까지 스톡홀름 지역을 CO2 프리 지역으로 만드는 것임
    - 이 목표에 따라 대체연료 및 재생 에너지시장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17년 스톡홀름의 대규모 자금조달 중 일부는 노스볼트(Northvolt)와 같은 청정기술 스타트업에 의해 주도되었음
- 스웨덴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ICT 산업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임<sup>6)</sup>
  - 스톡홀름에서 북서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00만m<sup>2</sup>로 여의도 면적의 2/3 정도임

6) KIST, 글로벌 선도 혁신 클러스터의 성공 비결을 찾아서-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2018.10.1

- 현재 972개의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며, 3만 2,5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중 ICT 부문 근무자는 1만 8,108명에 달함<sup>7)</sup>
-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운영조직은 일렉트럼(ELECTRUM) 재단과 하부조직 2개(KSCAB, STING)로 구성되어 있음
  - 일렉트럼 재단은 시스타 운영의 최고 협의체로서 시스타 소재 기관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회 수요를 파악하며, 시스타 발전방향을 결정함
  - KSCAB(Kista Science City AB)는 산업, 정부, 교육·연구계 간 관계를 구축하고 마케팅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들과의 다양한 포럼, 세미나, 국제 컨퍼런스, 위원회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함
  - STING(Stockholm Innovation & Growth, STING)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스타 내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스웨덴 전역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스웨덴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조직인 STING은 '02년 설립되었으며 ICT, 인터넷/미디어, 청정기술, 생명공학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음
  - 지금까지 274개의 가장 유망한 스웨덴 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했으며, 5억 2,600만 유로의 자금조달, 2,639명의 일자리 창출, 2억 4,800만 유로의 매출을 달성하였음<sup>8)</sup>
  - 매년 150~200개의 프로젝트를 심사해 15~20개의 기업을 선정하고, 비즈니스 개발 코칭, 비즈니스 네트워크 연결, 벤처캐피탈 소개, 국제 네트워크 연결 등을 지원함
  -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STING 인큐베이트(STING Incubate)와 STING 엑셀러레이트(STING Accelerate)임
    - STING 인큐베이트는 4개 산업군(ICT, 인터넷/미디어, 청정기술, 생명공학)의 프로토타입 개발, 시장분석과 테스트, 영업/판매전략 등 비즈니스 개발, 자금조달, 직원모집,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함
    - STING 엑셀러레이트는 인터넷/미디어 관련 기업들에게 시제품/서비스의 판매/마케팅을 지원하며, 연간 2회에 걸쳐 16개 기업을 지원함

7) <https://kista.com/english/>

8) <https://sting.co/en/>



〈표 3〉 STING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개요

| 구분       | STING Incubate                                                                                                                                   | STING Accelerate                                                                                                   |
|----------|--------------------------------------------------------------------------------------------------------------------------------------------------|--------------------------------------------------------------------------------------------------------------------|
| 지원 대상    | 프로토타입/알파* 출시                                                                                                                                     | 프로토타입/알파 출시                                                                                                        |
| 프로그램 기간  | 12개월                                                                                                                                             | 4개월                                                                                                                |
| 승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속적인 승인, 분기별로 시작</li> <li>• 연간 15~20개 회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2회, 각 8개 회사</li> <li>• 연간 16개 회사</li> </ul>                            |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펠 캐피탈(Propel Capital)**로부터 30만~50만 SEK*** 투자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펠 캐피탈(Propel Capital)로부터 30만 SEK 투자</li> </ul>                          |
| 지원 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Deep Tech, • 인터넷/미디어/디지털</li> <li>• 헬스 &amp; 의료기술</li> <li>• 지속가능성 및 청정기술, • Edtech, • 게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미디어/디지털</li> </ul>                                                    |
| 지원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전문 코치와 일시적인 코치</li> <li>• 주당 4시간까지</li> <li>• 모든 회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주간 미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명의 코치</li> <li>• 주당 1시간</li> <li>• 모든 회사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주간 미팅</li> </ul> |
| 무료 사무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ING 사무실 내 사무공간을 6개월간 제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ING 사무실 내 사무공간을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제공</li> </ul>                                |
| 비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스톡옵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스톡옵션</li> </ul>                                                        |
| 졸업 회사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olutental, Yubico, Videoplaza, Barnebys, Midsummer</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lpy, Karma, Sudio, DPOrganizer, Sniph</li> </ul>                       |

자료 : STING 홈페이지(<https://sting.co/en/startup-programs/>)

- 주 : 1. 알파(alpha) 단계 : 상품 콘셉트의 주요 골격을 갖추고,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그 개발 방법이 어떤지를 내 부적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단계
2. 프로펠 캐피탈(Propel Capital)은 기업가, 혁신가 및 변화 추진자에게 투자해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3. SEK : 스웨덴 크로나

□ 읍살라 혁신센터(Uppsala Innovation Centre, UIC)는 '99년 읍살라시, 스웨덴 농과 대학, 읍살라대학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인큐베이터임

- UIC는 스웨덴의 선도적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트 중 하나이며, UBI 글로벌이 대학과 제휴한 세계 4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선정됨<sup>9)</sup>
  -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의 상업화, 규모 확대 및 국제시장 진출 등의 노력을 지원함
- '17년 UIC 회사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3억 9,100만 SEK(3,980만 유로)에 달했으며, 전체 매출은 5억 SEK를 달성하였음<sup>10)</sup>
- 매년 80개의 프로젝트,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들이 UIC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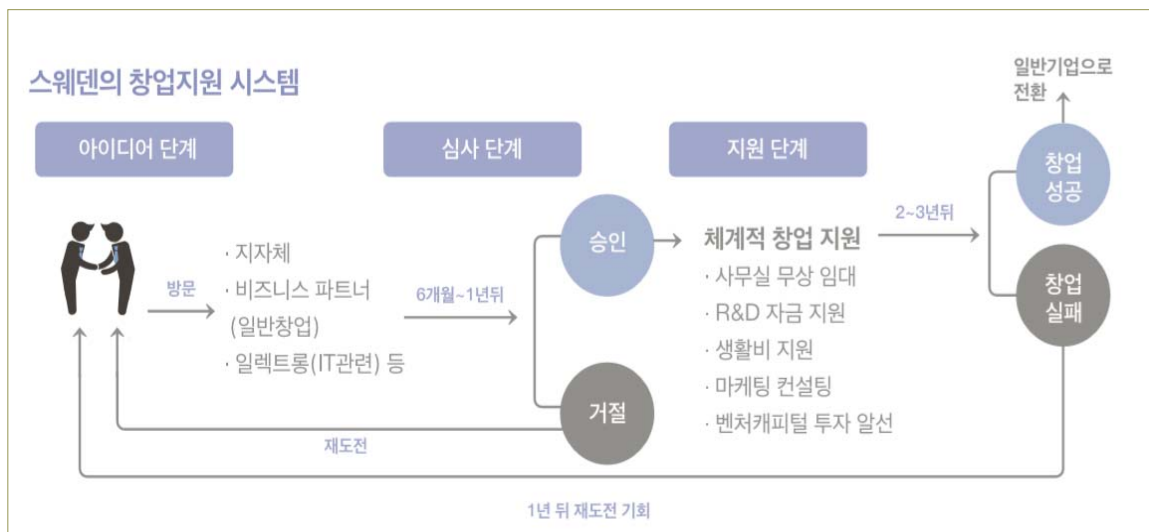
9) <https://www.uic.se/en/about-uic/>

10) <https://www.uic.se/en/about-uic/>

- 신청하고 있으며, 230개의 혁신적 비즈니스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최종 프로그램 통과 기업의 90%가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함<sup>11)</sup>
  - 창업지원 관련 기관들을 한 건물 내에 입주시켜 창업기관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 공식/비공식 회의는 물론 휴식시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해 네트워킹, 정보교환 및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2~4명의 컨설턴트를 전일제로 고용하여 컨설턴트 한명이 다수의 스타트업에 담당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현직 CEO급 인사 50여명을 확보, 창업기업별 전담 코치를 배정함
    - 스타트업별 주당 최대 8시간씩 2~3년을 지원하고, 코치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나 동 비용은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을 진출한 이후 5년에 걸쳐 부담함
-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을 연구·혁신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하에 스웨덴 혁신청(VINNOVA)을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 혁신청은 스웨덴의 혁신과 연구, 지속 성장 진흥을 담당하는 기업·혁신부 산하기관으로 '01년 설립되었음
    - 직원은 스톡홀름 본사에 195명, 브뤼셀 5명, 텔아비브 1명, 실리콘밸리 1명 등 총 200명 정도임
  - 주 업무는 연구개발 지원, 연구성과의 상업화, 혁신기업 창업지원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산업 및 학계의 경쟁력 강화, 연구혁신 환경개선, 연구성과의 사회발전 기여를 모토로 매년 약 16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16~'19년까지 8.2백만 유로를 투입해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젝트와 지속가능한 성장 제고, 제조업 역량 확대, 테스트베드 확대 등에 투자하고 있음
  - 업무 중 가장 큰 기능이 기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일년에 2회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있음
    - '17년에는 5,000개사의 지원업체 중 2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였음

11)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읍살라혁신센터 소개, 2014.3.7.

〈그림 1〉 스웨덴의 창업지원 시스템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진 5개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2014.6

- 무상으로 제공되는 대학교육 역시 스웨덴 내 스타트업 기업 확대 및 창업가 정신 고취에 일조하고 있음<sup>12)</sup>
  - 스톡홀름 부근의 다섯 대학이 모여 만든 스톡홀름 창업대학(Stockholm School of Entrepreneurship)은 기업가정신뿐 아니라 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수업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학교 내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창업에 대해 고민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인 'Campus'를 두어 실제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이 밖에도 왕립공과대학(KTH)과 연계해 '02년에 만들어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STING과 스톡홀름 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이 만든 비즈니스 랩(Business Lab)은 학생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음

1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 스타트업의 생태계와 관련 노동 현안, 2017.4

### ③ 핀란드의 혁신창업 생태계와 지원 정책

- 핀란드는 연구와 혁신 분야에 GDP의 2.7%(2017년 기준)라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유럽 국가로서, 유럽연합이 발표하는 종합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에서 유럽의 혁신 리더로 선정되었음<sup>13)</sup>
  - 효율적인 교육 및 직업연수 시스템과 숙련된 노동력, 안정된 기관을 바탕으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특화함으로써 디지털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꾀하고 있어 주목됨
    - 청정기술과 디지털의료, 바이오경제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핀란드는 노키아 쇼크<sup>14)</sup> 이후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기술창업 주도의 성장을 도모한 결과 스타트업 강국으로 부상하였음
  - 산학연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선진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유럽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함
  - 핀란드에서는 매년 4천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3년간 고성장을 달성한 300~400개의 성장 스타트업(growth startup)이 존재함<sup>15)</sup>
  - '17년에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는 820개의 핀란드 스타트업에 대해 혁신자금을 지원하였음
- 그레이터 헬싱키(Greater Helsinki)<sup>16)</sup> 지역은 현재 유럽의 창업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
  - 헬싱키는 정보통신기술, 게임 및 청정기술 분야의 선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헬스분야에서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타나고 있음
  - 스타트업, 도시, 기업 및 연구소 간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글로벌 대과제(great challenge) 해결에 매우 강점을 갖게 되었음
- 그레이터 헬싱키 지역은 수세기 동안 디지털기술의 최선두에 있었음
  - 이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정부의 지원, 에스푸(Espoo) 기반 노키아의 지배력 때문으로 볼 수 있음

13) EU집행위원회, 2018 유럽의 과학기술 혁신 및 한국과의 협력 활동, 2019.1.25

14) 핀란드 GDP의 24%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주력인 무선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대량 실업과 경기침체를 야기함

15) <https://www.businessfinland.fi/en/do-business-with-finland/finnish-business-environment/startup-environment/>

16) 헬싱키와 주변의 소도시를 포함

- 매년 겨울 이 지역에는 유명한 창업컨퍼런스인 슬러쉬(Slush) 때문에 전세계에서 창업가 및 투자자들이 모여들고 있음
  - 정부는 혁신 및 국제화 기관인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를 통해 생태계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핀란드 스타트업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음
  - 긴밀하게 구성된 스타트업 공동체를 통해 창업가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정보와 노하우를 확산시키고 있음
- 그레이터 헬싱키 지역에는 게임, 인공지능, 헬스 및 생명과학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음
- (게임) 그레이터 헬싱키의 게임 스타트업들은 로비오(Rovio)와 수퍼셀(Supercell)과 같이 세계적인 명성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설립되었음
    - 주목할 만한 특징은 게임 개발자와 창업자 사이의 협력과 여러 세대에 걸친 발전인데, 예를 들어, 현재의 다수 게임 개발자들은 1990년대 설립된 러메디(Remedy)에서 경험을 축적하였음
    - 현재 로비오와 수퍼셀은 임원과 종업원들이 새로운 게임 리더인 시어리어스리(Seriously)를 비롯한 신세대 게임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투자함으로써 그레이터 헬싱키 지역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공지능) 핀란드 정부는 사회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구현하는 ‘공동 국가 비전(common national vision)’을 선언하였음
    - 알토대학(Aalto University)과 헬싱키대학(University of Helsinki)이 설립한 新핀란드AI센터(new Finnish Center for AI)의 연구는 이미 혁신을 창출하고 있음
    - 알토대학의 딥러닝연구그룹(Deep Learning Research Group)은 큐리오스AI회사(Curious AI Company)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일반 인공지능 분야에서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기술 거물들과 경쟁하고 있음
    - 큐리오스AI 설립자는 이전에 젠로보틱스(ZenRobotics)를 시작했는데, 이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를 분류하는 AI지원 로봇을 사용하고 있으며 1,7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음
  - (헬스 및 생명과학) 생명과학 및 헬스 분야에서 흥미있는 지역 발전 사례 중 하나는 핀젠(FinnGen)의 출시임
    - 핀젠은 새로운 치료법과 진단법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만개의 핀란드 혈액 샘플 분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야심찬 유전자 연구 노력 중 하나임
    - 미국의 오피오이드(opioid)<sup>17)</sup> 과다복용에 대한 선행 치료법도 헬싱키에서 개발되었고, 지역

보건의료기관들도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음

- 대표적인 지역 성공사례는 작년에 1,7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이미 40개국의 고객을 확보한 유전자 검사 회사인 블루프린트 제네틱스(Blueprint Genetics)임

□ 핀란드 정부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을 표방하며, 민간부문과의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음<sup>18)</sup>

- (자금) 정부와 민간 수출 신용기관이 설립한 특수금융 공적자금 기관인 핀베라(Finnvera)는 스타트업 인수, 투자 및 자금조달 방안 등을 제공함
- (기술) 창업 붐 조성을 위해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디지털 라이트하우스(Digital Lighthouse) 전략을 추진함
  - 디지털 라이트하우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창업 붐을 돕기 위해 단기(short-term), 중기(Mid-term), 장기(Long-term) 등 3단계로 구분해 지원함
  - 단기 지원은 특정 회사가 자사의 연구를 사업 아이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도움을 주는 전략이며, 핀란드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sup>19)</sup>가 주도하고 있음
  - 중기 지원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으로,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sup>20)</sup>가 주도하고 있음
  - 장기 지원은 5G,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VTT(핀란드 테크니컬 리서치 센터)'가 진행하고 있음

〈표 4〉 디지털 라이트하우스 전략 개요

| 단계 | 주요 지원 내용                                                                                                                                                     |
|----|--------------------------------------------------------------------------------------------------------------------------------------------------------------|
| 단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회사가 자사의 연구를 사업 아이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도움을 주는 전략</li> <li>•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가 주도</li> </ul> |
| 중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li> <li>• 정부 산하의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가 주도</li> </ul>           |
| 장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G,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책 연구를 진행</li> <li>• 'VTT(핀란드 테크니컬 리서치 센터)'가 진행</li> </ul>                  |

자료 : Kotra,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 방안, 2018

17)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

18) Kotra,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협력 방안, 2018

19) 이전에는 Finpro(수출·투자·관광 진흥기관)가 지원을 주도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자로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로 통합됨

20) 이전에는 TEKES(기술혁신지원청)가 지원을 주도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자로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로 통합됨

-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는 가장 대표적인 혁신 지원기관으로 혁신산업에 투자하고 있음<sup>21)</sup>
  - 비즈니스 핀란드는 '18년 1월 1일에 테케스(TEKES, 기술혁신지원)와 핀프로(Finpro, 수출·투자·관광진흥)를 통합해 출범하였음
    - 주요 추진업무는 기업과 대학 등의 R&D, 혁신자금 지원, 수출·투자·관광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해외직접투자 유치, 관광진흥 등임
  - 기업과 스타트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구축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음
    - 향후 정부의 비즈니스 서비스 시스템의 명확화·간결화 목표를 지원하고, 핀란드 혁신 시스템의 세계화를 강화하며, 핀란드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20년까지 2배 확대할 계획임<sup>22)</sup>
- 비즈니스 핀란드는 스타트업 지원 시 최초에 근본적인 질문, 즉 스타트업이 되고 싶어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향후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진성 스타트업인가를 판단하고 있음
  - 최초의 1,200개사 중에서 기본심사를 통해 800개를 추려내고, 이중 600개사가 '템포'라는 5만 유로의 소액펀드를 신청하고 400개사에 대해 승인함
    - 이를 통해 비즈니스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 등을 통해 사업성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 초기 아이템을 출시함
    - 즉, 기업이 스스로 사업성을 증빙하게 하는 데 선발 과정의 의의가 있으며, 이후 400개사 중 성과의 우수성을 재차 평가해 이중 300개사에 대해 R&D 지원이 결정됨
  - 펀드 또는 대출을 통해 25만~300만 유로가 지원되고, 50개사에는 고속 성장 파이프라인(fast growth pipe-line) 펀드를 지원해 이중에서 10개사 정도가 급격한 성장을 시현함
  - '17년 핀란드 스타트업 대상 투자금액은 3억 4,900만 유로로 '12년 1억 6,700만 유로보다 약 108% 증가하였음
    - '17년 1인당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은 61달러로 유럽 평균 30달러의 두 배 이상임
    -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지원기업의 총매출액 증가율은 비지원 기업에 비해 평균 56% 높음('12~'15년)

21) Kotra, 핀란드 Start-up 지원기관 Business Finland의 지원 정책, 2018.11.28

22) 주핀란드 대한민국대사관, Business Finland 출범, 2018.1.19



〈표 5〉 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개요

|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과 대학 등의 R&amp;D, 혁신기금 지원, 수출·투자·관광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중소기업 해외진출, 해외직접투자 유치, 관광진흥 등</li> </ul>                                                                                                                                                                                            |
|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즈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 지원기업의 총매출액 증가율은 비지원 기업에 비해 평균 56% 높음('12~'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 해외직접투자 지원을 통해 해외법인 180개 신규 설립</li> <li>'18년 1월 TEKES(기술혁신지원)와 Finpro(수출·투자·관광진흥)를 합병해 출범</li> <li>600명 규모, 예산 6억 유로, 해외사무소 40개, 지방사무소 15개</li> </ul> </li> </ul> |
| 스타트업 지원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 핀란드 스타트업 대상 투자금액은 3억 4,900만 유로로 '12년 1억 6,700만 유로보다 약 108%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 1인당 벤처캐피털 투자금액은 61달러로 유럽 평균 30달러의 두 배 이상</li> <li>GDP 대비 벤처투자는 0.055%로 유럽 평균 0.039%보다 약 40% 높음(유럽 4위)</li> </ul> </li> </ul>                                            |

자료 : Kotra, 핀란드 Start-up 지원기관 Business Finland의 지원 정책, 2018.11.28

- '18년 4월에는 핀란드 스타트업 허가(Finnish Startup Permit) 프로그램을 시작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핀란드에 스타트업을 설립하고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음<sup>23)</sup>
  - 이 프로그램은 핀란드에 기업을 설립해 국제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EU 외부의 글로벌 전문가를 위한 것임
    - 목적은 글로벌 전문가의 이민과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것임
  -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2명 이상의 스타트업 팀, △핀란드에서 고성장 기업을 설립하려는 의도, △혁신적인 사업계획, △초기단계 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과 자금 등을 갖춰야 함
  - 일반적으로 허가 기간은 2년이며, 신청자가 스타트업 기업가로 계속 일할 경우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회사 설립 후 비즈니스 핀란드와 핀란드의 개인투자자 모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핀란드에 설립된 국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개발을 위해 비즈니스 핀란드에 최대 5만 유로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의 글로벌 전문가들이 신청하고 있는데, 지원 상위 3개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 등임<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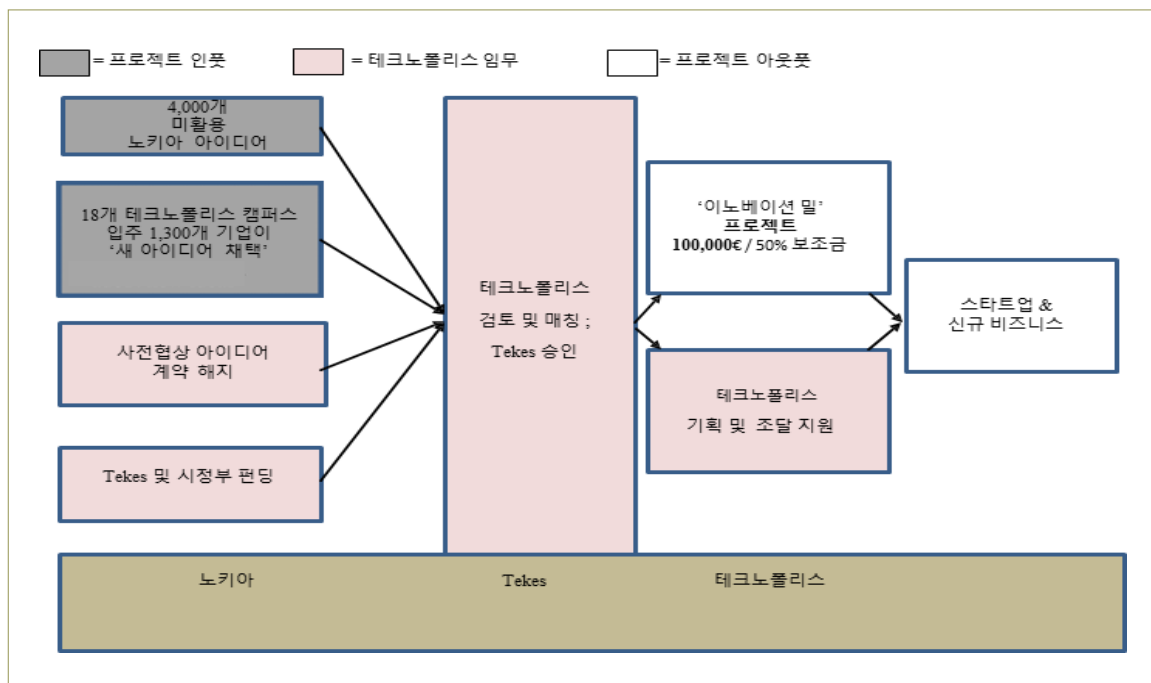
23) <https://www.businessfinland.fi/en/do-business-with-finland/work-in-finland/startup-permit/>

24) Finnish Immigration Service, The new Finnish Startup Permit attracted interest particularly from technology professionals during its first year, 2019.3.4



- 한편,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살리기’가 아닌 노키아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생태계 구축과 창업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였음<sup>25)</sup>
- ’09년에는 기술혁신투자청(Tekes, 이하 테케스)을 통해, 사장될 수 있는 노키아의 아이디어나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노베이션 밀(Innovation Mill)’ 프로그램을 출범시킴<sup>26)</sup>
- ‘이노베이션 밀’을 통해 NFC, 환경 및 에너지 솔루션, 헬스케어 및 복지 어플리케이션, 위치 기반서비스, 모바일 보안, 미래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

〈그림 1〉 Innovation Mill 프로그램 개요



자료 : Mokter Hossain, "Open Innovation Mill: Utilization of Nokia's Non-Core Idea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8, 2012

25) 매일경제, 핀란드, 노키아 몰락하자 휘청...스타트업이 일으켜, 201.3.11, 아시아경제, 노키아 망해도 핀란드 웃는 까닭, 2015.5.1., 박기임, 최근 핀란드의 창업 생태계 변화와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3.5

26) Mokter Hossain, "Open Innovation Mill: Utilization of Nokia's Non-Core Ideas",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8, 2012

#### 4 결론

- 스웨덴과 핀란드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산학관 협력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학관의 삼중나선형(triple helix)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됨
    -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매우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으며, 에릭슨 등 글로벌 무선통신기술 선도기업을 비롯한 관련 중소벤처기업, 대학, 주요 정부 연구소들 간 활발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핀란드 역시 산학관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IC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산학협력 순위는 세계 1위로 평가받고 있음<sup>27)</sup>
    - 특히 정부·학교·기업이 만든 다양한 테스트베드는 핀란드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기업이 핀란드를 찾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토양 위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함
  - 스웨덴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안테의 법칙(안테 라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많음<sup>28)</sup>
    - 안테의 법칙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정서로, 오래 전부터 스웨덴에서 내려오는 겸손과 평등을 강조하는 국민정서이며, 이러한 정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됨
  - 핀란드의 경우에도 다양한 분야의 혁신 에너지와 이를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가 핀란드 대학생과 청년들을 스타트업 창업으로 유도하였음
-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패를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 것도 중요한 요인임
  -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매년 10월 13일에 ‘실패의 날(Day for Failure)’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음
    - ‘10년 10월 13일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실리콘밸리의 벤처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이 가세하면서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하였음
  - 스웨덴은 세계 기업들의 실패한 제품만을 모아 전시한 ‘실패 박물관’을 ‘17년 6월에 오픈하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27) 한국경제매거진, 인구 550만 핀란드, 유럽 ‘스타트업 요람’ 된 이유, 2017.9.20

28) Kotra, 스웨덴은 어떻게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가 되었나?, 2017.2.8

## 〈참고〉 핀란드 스타트업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ABC 순)

| 이름                                       | 특징                                                                                                                                 | URL                                         |
|------------------------------------------|------------------------------------------------------------------------------------------------------------------------------------|---------------------------------------------|
| Aalto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도 스타트업 단체</li> <li>청년 주도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힘</li> </ul>                       | aaltoes.com                                 |
| Aalto Startup Cen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지원센터</li> </ul>                                                                           | www.start-upcenter.fi                       |
| Aalto Ventures Program(AV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융합교육기관</li> </ul>                                                             | avp.aalto.fi                                |
| ARTIC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르딕-발트3국 민간투자 네트워크 컨퍼런스</li> </ul>                                                          | arctic15.com                                |
| Das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 주도 디자인 해커톤 대회</li> </ul>                                                                 | thedash.fi                                  |
| Design Factor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토타입 개발 및 산학협력 교육기관</li> </ul>                                                             | designfactory.aalto.fi                      |
| Enterprise Fin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창업 관련 행정 정책 통합 운영 서비스</li> </ul>                                                        | yrityssuomi.fi(2018년부터 www.suomi.fi로 통합 운영) |
| Fall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도 취업 및 투자 박람회</li> </ul>                                                                | fallup.fi                                   |
| Finnish Business Angels Network(FiB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엔젤 투자자 네트워크</li> </ul>                                                                  | www.fiban.org                               |
| Finnve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 창업투자 금융기관</li> </ul>                                                           | www.finnvera.fi                             |
| Finnish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벤처캐피털협회</li> </ul>                                                                      | ww.fvca.fi                                  |
| The Hu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스타트업 관련 구직 및 투자 정보 제공</li> </ul>                                                        | www.thehub.fi                               |
| Junc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도 ICT 해커톤 대회</li> </ul>                                                                 | hackjunction.com                            |
| Kiua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 주도 초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엑셀러레이팅</li> </ul>                                                     | www.teamup.kiuas.us                         |
| Reboot Fin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공공기관 혁신사업 프로젝트</li> </ul>                                                               | www.rebootfinland.fi                        |
| Sit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의회 산하 혁신기금 운영기관</li> </ul>                                                              | www.sitra.fi                                |
| Slus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 최대 스타트업 축제</li> <li>매년 11월 말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청년 주도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힘</li> </ul> | www.slush.org                               |
| The ShortCut La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스타트업 협업공간 및 워크숍 제공 비영리단체</li> </ul>                                                     | theshortcut.org                             |
| Startuplifer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청년들의 스타트업 해외취업 중계(청년 주도의 비영리단체)</li> </ul>                                              | startuplifers.org                           |
| Startup Sau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최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li> <li>청년 주도 핀란드 스타트업 생태계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힘</li> </ul>                  | startupsauna.com                            |
| Tek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경제고용부 산하 연구자금재단</li> <li>핀란드 내 최대 연구지원 및 투자처</li> </ul>                                 | www.Tekes.fi                                |
| UltraHac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워킹 및 해커톤 대회</li> </ul>                                                                    | ultrahack.org                               |
| NewCo Helsink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헬싱키 시 산하 스타트업 협업공간</li> </ul>                                                           | ww.newcohelsinki.fi                         |
| Team Fin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시장 진출과 관련한 핀란드 공공기관 정보서비스</li> </ul>                                                     | team.finland.fi                             |
| VTT Technical Research Center of Finla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고용경제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핀란드 내 최대 공공연구기관)</li> </ul>                                          | www.vttresearch.com                         |
| Yritys Espoo, Yritys Vanta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란드 에스푸, 반타 산하 스타트업 협업 공간</li> </ul>                                                        | www.yritysespoo.fi                          |

자료 : Kotra, 핀란드 미래산업 동향 및 스타트업 생태환경, 2018.1.11.

## II 해외동향



### 1 미국 중소기업청, '18회계연도에 소액대출 프로그램 통해 7,680만 달러 대출

- 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중개기관(intermediary)을 통해 여성, 저소득층, 소수민족 및 제대군인 등에게 자금을 제공
  - 적격 비영리 대출 중개기관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후 다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금 지원 외에 마케팅, 경영 및 기술 지원 등도 실시
  - 기업 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지원하며, 원재료 구매, 설비투자 등은 가능하지만 부동산 구입 등은 불가
  - 현재 49개주와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에 144개의 소액대출 중개기관이 활동
- '18회계연도에 소액대출 중개기관들은 5,459건, 총 7,680만 달러의 소액대출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소액대출 규모는 1만 4,071달러, 이자율은 7.6%
  - 중소기업청은 중개기관에 대해 58건, 총 3,73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중개기관 당 평균 대출 승인 규모는 64만 3,724달러
  - '18회계연도말까지 중소기업청은 소액대출 중개기관에게 1,230건, 총 5억 6,250만 달러를 대출하였으며, 미상환원리금은 1억 6,530억 달러
  - 중개기관의 중소기업 소액대출 건수는 '14회계연도에는 3,948건에서 '18년회계연도에는 5,459건을 증가하였으며, 소액대출 금액도 5,610만 달러에서 7,680만 달러로 증가
-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 문제, 프로그램 시행 비용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과다하다는 문제, 행정 관리상의 문제 등이 제기
  - 그러나 프로그램 옹호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민간부문 또는 심지어 중소기업청의 7(a)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여성 기업주와 소수민족 대출자들에게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

▶ 자료 : 미국 중소기업청, 소액대출 프로그램 실시 현황(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Microloan Program), CRS, 2019.3

## ②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21/'22회계연도 중소기업 지출 비중 33%로 확대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기 위한 '20년까지의 액션 플랜을 발표
    - 영국 중소기업 수는 570만개로 영국 경제에서 고용 1,600만명, 매출액 1조 9천억 파운드를 담당
    -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공조달 절차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입찰 참여 및 계약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액션 플랜에 따라 BEIS 그룹\*은 '22년까지 중소기업에 대해 3,500만 파운드를 지출할 예정
    - 동 액션 플랜은 BEIS가 지출하는 예산 3파운드당 적어도 1파운드는 중소기업에 지출할 것을 보장
    - BEIS 그룹의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대형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해당 계약과 관련된 공급망 상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출을 모니터링하도록 함으로써 BEIS 그룹의 중소기업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
- \* BEIS 그룹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와 산하 41개 기관을 포함
- 또한, 정부의 대형 공급업체들이 콘트랙트 파인더(Contracts Finder, 영국 정부조달 정보 제공사이트 <https://www.gov.uk/contracts-finder>)에 하청계약 내용을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정부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 '16/'17회계연도에 BEIS와 산하기관들(NDA 제외)의 조달금액은 약 12억 파운드였으며, 이중 20%는 핵심 부서에서 나머지 80%는 산하기관에 의해 지출
    - BEIS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며, '21/'22 회계연도에 중소기업 지출 비중을 33%까지 높이기로 합의
    - 이러한 지출 목표에 대한 추진 상황은 분기별로 내각에 보고되고, 매년 목표가 확대되고 있는지, 그 목표가 실현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

▶ 자료 :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에 관한 액션플랜(BEI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ACTION PLAN), BEIS, 2019.3

### ③ 영국, 혁신여성(Women in Innovation) 캠페인 통해 여성 혁신가 지원

- 영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공 확률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6년 혁신청 자금 지원 신청 중 여성이 주도한 건은 1/7에 불과
  - 여성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경우 영국 경제에 1,800억 파운드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영국 혁신청(Innovate UK)은 혁신의 다양성을 장려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번째 '혁신 여성(Women in innovation)' 캠페인을 실시
- 미디어 컨설팅회사 에비쿼티(Ebiquity)社가 실시한 여성 혁신 관련 과제 조사에 따르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 혁신가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
  - 엔젤 투자자들은 매년 15억 파운드를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많은 여성 혁신가들은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에쿼티 투자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
  - 많은 여성 창업가들이 여성 투자자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영국 엔젤 투자자 중 여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 가시적인 여성 롤 모델의 부재도 여성의 비즈니스적 야망 달성을 좌절시키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 조사
  -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청은 게티 이미지(Getty Images)社와 협력해 우승자들의 도전적인 모습을 포착해 중앙 런던 갤러리에 전시하고 게티의 온라인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추가
- 여성 혁신 모멘텀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지난해 혁신청은 혁신 여성 캠페인(Women in Innovation competition)을 실시
  - 이 캠페인을 통해 청정성장, 미래이동성, 고령화사회, AI 및 데이터 주도 경제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기업가 9명에 대해 5만 파운드의 자금과 멘토링 및 비즈니스 지원을 제공
  - 또한 영국 전역의 학교에 명패를 설치하고, 여성 개인들의 탁월성을 홍보

▶ 자료 : 영국, 혁신 여성 캠페인을 통해 여성 혁신가를 지원(Women in Innovation-Changing the world), Innovate UK, 2019.3

#### 4 영국, '17~'18년 12개월간 490만 명의 일자리 이동 발생

- '98~'18년 동안 일자리재배치율\*은 20~28% 사이에서 큰 변화 없는 추세 유지
  - 금융위기 이전의 일자리재배치율은 평균 27%였으며, '10년 이후에는 22%를 기록
  - 순고용 변화율은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하락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경기하락 이후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완만한 추세를 유지
  - 기업 축소로 인한 고용감소의 폭은 '10~'15년 사이에 지속 감소했지만 최근 2~3년 간에는 감소폭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
- \* 고용창출[감소]은 해당 연도에 확장[축소] 또는 설립된[퇴출된] 모든 기업에 대해 종합한 고용 변화를 나타내며, 일자리재배치율은 고용창출률과 고용감소율의 합
- 산업별로 지난 20년간 일자리 창출과 감소를 비교해 보면 일자리재배치율이 20% 미만인 부문은 제조업, 도소매, 금융서비스 등
  - 건설, 호텔 및 레스토랑, 기업 서비스, 개인 서비스 등의 재분배율은 국가 평균인 26%보다 높으며, 특히 기업 서비스의 경우 34%로 가장 높은 수준
- '17~'18년 12개월간 일자리재배치율은 23%로 총 490만 명의 이동이 발생
  - 226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265만 명의 일자리가 증가해 순변화는 39만 명
    - 제조업의 경우 순고용은 3만 3천명 증가했으며, 전체 이동 수는 42만 8천명
    - 기업 서비스의 경우 13만 6천명의 순고용이 증가하였으며, 약 2백만 명의 이동이 발생
    - 개인 서비스의 경우 3만 1천명의 순고용이 증가했으며, 40만 명 정도의 총 이동이 발생
  - 스타트업을 통한 일자리 증가는 100만 명 정도이며, 기업 확장에 의한 일자리 증가는 165만 명 수준
  - 폐업/퇴출에 의한 일자리 감소는 95만 명이며, 기업 축소로 인해 131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

▶ 자료 : 영국의 고용창출과 감소 추이 분석(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the UK 1998-2018?), ERC, 2019.3



## 5 유럽 중소기업, 디지털 플랫폼 기회 포착 위해 혁신 추진

- 호라이즌2020 프레임워크 프로그램(Horizon 2020 Framework Programme)에 따라 SME인스트루먼트(SMEi) 자금 조달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 패턴에 대해 분석
  - 유럽 소규모 기업들이 디지털화 유도성(digital affordance)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를 획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
  - 디지털 플랫폼/디지털 시장을 정의할 때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고려
    - ① 디지털 플랫폼 혁신의 성격, 즉 회사의 제품/기술, 혁신 프로세스의 특성, 네트워킹의 특성 및 협력 활동
    - ② 동반 비즈니스 모델의 설계 및 개발, 즉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 유럽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도출
  - (전통적 산업의 직거래(disintermediation)/전환) 디지털 플랫폼 혁신의 다양한 측면은 직거래 메커니즘, 전환 또는 기존 산업의 파괴 등이 가능
  - (외부 커뮤니티 참여) 사용자, 기여자 및 상호보완적인 비즈니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핵심 관리 업무로 다른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
  -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조직) 다양한 산업에 걸친 외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플랫폼과 공유경제 모두에 해당되는 요소를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
  - (갈등 관리) 디지털 플랫폼 중소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는 플랫폼에 통합된 다양한 커뮤니티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
  - (스케일업 곤란) 비즈니스 시작에 대한 장벽은 매우 낮지만 규모 확대에 대한 장벽은 높은 상황
- 이외에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 성장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원, 과거 경험을 통한 기회 획득, 시장의 지리적 분산 극복 등이 중요한 과제임

▶ 자료 : 유럽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혁신 활동 분석(Digital platform innovation in European SMEs), European Commission, 2019.3



## ⑥ 일본 중소기업, IoT를 활용해 서비스화 추진

- 제조업의 부가가치 획득 수단이 사업 프로세스의 상류(설계·디자인) 또는 하류(애프터 서비스)로 이행하는 소위 스마일 커브화가 진행
  - 그러나 제조업체가 상류에 해당하는 설계나 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신선한 아이디어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
  - 반면 하류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수리 같은 애프터서비스는 자신이 생산한 분야를 취급하기 때문에 기술면에서도 사업 전개가 상대적으로 용이
- 서비스 사업은 제조업과는 다른 운영이 필요하고 제조업자가 직접 비즈니스로 전개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줄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IoT가 주목
  - IoT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거나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은 고객의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고 가동상황이나 금형(金型)의 마모 정도 같은 데이터를 취득해 클라우드에 저장
  - 수집 데이터를 분석해 원격지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고장 방지를 위해 미리 정비나 부품교환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
- 경영자원에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은 Io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T기업과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플랫폼을 이용해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
  - 고객들이 Io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비용 이외의 요소도 필수적인데, 예를 들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업무효율화로 연결시킨다는 관점도 중요
- 한편 IoT 활용에 앞선 대형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AI·IoT 활용 시 과제나 우려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안대책’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4%로 다수를 차지
  - 고객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관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유출에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들은 고객의 사내 LAN을 활용해 해당기업의 서버에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존재

▶ 자료 : 일본, IoT를 활용한 중소 제조업의 서비스화(IoTを活用した製造業のサービス化のポイント), 日本政策金融公庫, 2019.3

## 7 일본 중소기업, 건강경영을 조직개혁 시책의 하나로 인식해야

- 일본 고용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건강경영에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경제계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
  - ‘16년에는 건강경영을 실천하는 우량한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법인을 표창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가 시작
    - 3회째인 ‘건강경영 우량법인 2019’에서는 대규모 법인 부문 820개, 중소기업 부문 2,503개 법인이 인증
  - 경제산업성과 도쿄상공회의소는 건강경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 기업이 건강경영을 실시하는 계기를 만드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건강경영 어드바이저 제도’를 창설했으며 지금까지 총 2만 명 이상이 수강
- 도쿄에 본사를 둔 광고업체 아사노제판소(浅野製版所)의 건강경영 사례는 중소기업들이 참고할만한 사례로 평가
  - 동사는 건강경영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매출을 늘려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혁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인식
  - 실제로 동사가 건강경영으로 이어졌던 개혁을 시작한 것은 7년 전으로, 당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이직률 상승과 디지털화·페이퍼리스화에 따른 실적악화가 겹치면서 회사 상황은 계속 악화
  - 동사가 시행착오 끝에 내린 결론은 ‘직원 개개인이 다양한 커리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업무분배의 적정화 추진’으로, 일련의 대처는 언뜻 보기에는 건강경영과 무관
    - 그러나 중소기업진단사는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된 시책을 병행하고, 직원들이 회사의 개혁 의지를 느끼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기 시작한 타이밍에 지체 없이 (건강증진과 신입사원의 심리케어 등) 사원의 건강상태에 관심을 갖는 수순을 밟은 것이 포인트’라고 분석
- 건강경영은 종업원의 건강증진, 정기검진 결과 개선 같은 노력에만 주목하기 쉽지만,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개혁 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업계구조, 시장특성 등 자사 실정에 맞는 각각의 접근방식이 필요

▶ 자료 : 일본 중소기업, 건강경영을 조직개혁 시책의 하나로 인식해야(中小企業の健康経営 その要諦とは~経営改革のひとつ まず は土壌づくりから), METI Journal, 2019.3

## ⑧ 일본, 오사카지역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과제 및 방향성

- 긴키(近畿)·오사카 지역의 사업승계 관련 특징을 보면, ‘경영자의 사업승계에 대한 의식’, ‘사업승계에 관한 계획의 유무’는 다른 지역과 유사
  - 그러나 ‘사업승계 계획은 있지만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계획이 없다’를 선택한 이유로 ‘아직 사업양도 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는 것이 특징
    - 오사카 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이 60.2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는 점이 ‘사업승계를 생각 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결과의 배경 중 하나
- 오사카 사업승계 현황 조사 결과, 후계자 후보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52.5%가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후계자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
  - 업종별로는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운수업이 ‘후계자 후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50%를 하회
  - ‘후계자 후보가 있다’고 답한 경우의 사업승계 실시 상황을 보면 ‘경영자원 인계(기술·인맥)’(79.4%)와 ‘토지’(82.6%)는 실시율이 높지만 ‘체제 정비(재무, 세무, 인사)’ (58.9%)는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기업이 다수
  - 반면 ‘후계자 후보가 없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친족 내 혹은 임원·종업원 중 후계자 후보의 유무’, ‘사업을 매각 또는 양도할 상대방의 유무’, ‘사업매각 또는 양도를 상담할 전문가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각각 33.7%, 12.5%, 23.7%만이 ‘있다’고 답해, 이들 3가지 항목이 원활한 사업승계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동 조사 결과는 후계자 후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주로 재무, 세무, 인사 같은 전문적인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후보가 없는 기업에게는 사업인계 지원 및 인재확보 지원과 관련한 시책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
- 오사카 내에서 사업승계를 경험한 중소기업(일부 승계준비기업)은 사업승계 시 곤란한 점으로 준비 부족, 선대 경영자와 후계자의 불화 등을 지적
  - 또한 친족 외 승계의 경우는 개인보증 및 주식 거래 등을, M&A의 경우는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과제로 지목
  - 사업승계 시책과 관련한 요구사항으로는 ‘상담처를 알고 싶다’, ‘만남의 장이 필요하다’, ‘사업승계 시책을 모른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자료 : 일본 오사카 지역 중소기업 사업승계 지원 과제 및 방향성(大阪府における中小企業の事業承継支援の課題と方向性), 大阪産業経済リサーチセンター, 2019.3

## 9 일본, 중소기업의 최대 과제는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 ‘19년판 중소기업백서는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최대 과제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로 규정
  - 이전 중소기업백서가 인력부족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고려해 ①경영자의 세대교체, ②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자기변혁에 초점
- (경영자의 세대교체) 젊은 세대에 대한 사업승계는 기업실적에 플러스 영향을 미치며, 사업승계나 경영자원 인계를 위해서는 조속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명시
  - ①친족 내 승계 지원조치는 그동안 진전이 있었으며 친족 외 승계를 통한 新사업 전개도 기대, ②폐업 시 경영자원 인수는 기존 경영자·창업가 쌍방에 유익, ③비교적 간단하게 창업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창업과 부업 형태의 창업 촉진도 중요하다고 평가
  - 그간 법인, 개인사업자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을 없애는 사업승계 세제를 추진한 결과 친족 내 승계를 지원하는 조치들은 크게 진전
  - 폐업 시 경영자원을 인수하는 것은 기존 경영자나 창업가 모두에게 유익하며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경우라도, 경영자원의 일부를 유상으로 양도한다면 폐업 비용의 일부를 충당 가능
- (구조변화에 대응) 인구감소, 디지털화, 글로벌화 등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규모기업 경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지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
  - ①IoT·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 ②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매력적인 제휴 상대이며, 연구개발 촉진도 중요, ③지방 중소기업일수록 역외(域外)·해외 수요를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 디지털 사회에서는 IoT,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IoT, AI 활용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촉진

▶ 자료 : 2019년판 일본 중소기업백서 개요(中小企業の動向), 中小企業庁, 2019.4

#### ㉔ 일본, 중소기업 고용자 중 50/60대 비중은 35%

- 중소기업의 고용자를 연령별로 보면 전체 2,699만 명 가운데 40대가 67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대 507만 명, 30대 502만 명, 60대 432만 명 순
  - 중소기업의 고령 고용자 비율은 남녀 대기업보다 높았는데 60대 남성은 중소기업이 16.5%, 대기업 9.5%였고, 60대 여성은 각각 15.4%와 8.9%를 차지
  - 70대 이상이 되면 남성은 중소기업이 6.1%인 반면 대기업은 1.3%, 여성도 중소기업은 5.6%인 반면 대기업은 1.2%에 불과
- 65세 정년기업은 중소기업이 16.8%, 대기업 9.4%로 중소기업 쪽이 높은 수준
  - 66세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중소기업 28.2%, 대기업 21.8%, 70세 이상은 중소기업 26.5%, 대기업 20.1%로 모두 중소기업이 높은 상황
  - 고용형태별로 보면 '12년까지 진행됐던 고용자의 비정규직화는 20대에서 40대까지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50대 이상, 특히 60대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아직 비정규직화가 진행 중
    - 60대 정규 고용자는 '02년 130만 명에서 '17년은 212만 명, 비정규 고용자는 172만 명에서 475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70대 이상은 22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27만 명에서 126만 명으로 각각 증가
  - 대기업과 비교하면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고령자의 정규고용 비율이 남성, 여성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50대 여성 역시 정규고용 비율이 높은 수준
- 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비제조업 가운데 60대의 구성 비율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 운수업·우편업, 부동산업·물품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등
  - 반면 대기업들은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아직 젊은 고용자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령화 정도는 중소기업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황
  - 직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보안직업 종사자, 관리직업 종사자, 운반·청소·포장 종사자, 운수·기계운전 종사자, 건설·채굴 종사자 등에서 60대 고용인원이 많았으며 특히 보안직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

▶ 자료 : 고령·장수사회를 맞은 일본의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 현황(高齡・長寿化社会と中小企業の高齢者雇用), 商工総合研究所, 2019.3

## 11 중국, 민영·소규모 영세기업 적자 기업 증가

- '19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민영기업과 소규모 영세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자금 조달난과 조달비용 상승 문제를 지적
  - '사기업' 수는 기업법인 전체(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68.3%, '개인' 소유 수는 86%로 모두 민영기업이 국유기업에 비해 비중이 크고, 소규모 영세기업 역시 기업 법인의 95.6%를 차지
  - 민영기업의 점유율은 도시부 취업자 수에서 최소한 57%, 고정자산 투자액의 62%, 수출액은 46%(모두 2018년 기준)를 차지
-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민영·소규모 영세기업의 업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 적자발생 기업 수 증가세(전년대비)는 '17년 10~12월 플러스로 돌아섰고 이후 전년대비 10%에 가까운 속도로 계속 증가
  - 사기업의 상황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요인으로는 중국이 '20년까지의 3대 정책과제로 제시한 금융리스크 예방을 인한 자금 조달난 및 조달비용 상승 등
  - 이 밖에 3대 정책과제의 하나인 환경보호 대책 강화 외에 과잉설비 정리, 사회보험료 징수강화 등 각종 구조개혁에 관련된 중국 정부의 노력이 민영·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영을 압박했다는 지적도 존재
- 민영·소규모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자 중국 정부는 자금조달 문제 완화 등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이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잇따라 지원책을 공표
  - 재대출·재할인 한도액을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상향, 금융기관의 소규모 영세기업 및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지원
  - 민영기업 신용위험완화증권 창설하고, 민영기업에 대한 에쿼티 자금조달 실시시를 위한 톨 창설도 검토
  -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민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지방정부계열 국유기업이 잇달아 펀드를 설립('19년 1월 기준 7천억 위안 규모)
  - 기업소득세 우대조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영세기업 기준 완화

▶ 자료 : 중국, 민영·소규모 영세기업 동향(中国の民営・小規模零細企業動向~金融支援強化が新たな金融リスクをもたらす恐れ), みずほ総合研究所, 2019.4

## 12 중국,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발표

- 중국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양호한 발전환경 조성, △자금난 해결, △재정 및 세금지원 정책 개선, △혁신 발전능력 제고, △서비스 업무 개선, △조직 리더십 및 조정과 협력 강화 등의 지침을 발표
- (양호한 발전환경 조성) 시장진입 확대, 중소기업 적극 지원,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감시 시스템 시행 등
  - (시장진입 확대) 시장진입, 심사 및 허가, 경쟁입찰, 군과 민간의 융합발전 등의 측면에서 각종 불합리한 장벽과 규제를 제거하고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
  - (공평하고 통일된 시장감시 시스템을 시행) 중소기업의 공평한 시장참여를 보장하며, 기업 및 출자인의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
- (자금난 해결) 중소기업 대출정책 개선, 대출채널 적극 확대, 자본시장 활용 직접 자금 조달 지원, 기업의 대출부담 경감, 분류 및 감독 메커니즘 구축 등
  - (중소기업 대출정책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00만 위안 이하의 소액 어음할인을 중점 지원
  - (대출 채널을 적극 확대) 고수익 채권, 사모채권, 대중창업·만인혁신 전문 대출수단, 창업투자자금 종류의 채권, 창업혁신기업 전문 채권 등을 적극 개발
- (재정 및 세금지원 정책 개선)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재정 및 세금 지원 향상, 중소기업 세금부담 경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조달정책 개선 등
- (혁신 발전능력 제고)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위한 환경 개선,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 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 유도, 정보화 서비스 제공 등
- (조직 리더십 및 조정과 협력 강화) 지원 및 조정 강화, 업무 감독 및 평가 강화, 우호적인 여론 형성 등
  - (업무 감독 및 평가 강화) 정기적으로 제3자 기관에게 중소기업 발전 환경 평가 및 사회 공포를 위탁

▶ 자료 : 중국,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지침 발표(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促进中小企业健康发展的指导意见》), 中国政府网, 2019.4



### 13 '19년 혁신기업, AI 및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사용

-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2019년 혁신적 기업 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이 AI 및 플랫폼을 광범위하게 사용
  - 이러한 특징은 상위 10대 기업에서 강한데, 13년 만에 애플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한 구글 알파벳은 'AI 퍼스트(AI first)' 기업으로 입지를 확고히 구축
  - 아마존은 소매 분야에서의 AI 활용 이외에도 알렉사(Alexa),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음성인식기술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도 선도
  - 애플은 선구적인 음성인식기술인 시리(Siri)에 투자하고 있으며, 자신의 iOS 플랫폼을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최고의 가상 작업장을 제공
- 대부분 기업들이 AI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혁신성이 높은 기업들, 즉 강한 혁신가(strong innovator)들은 AI 도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
  - 조사 기업 10개 중 9개 회사가 AI에 투자하고 있으며, 30% 이상이 AI가 향후 3~5년 동안 업계의 모든 혁신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
  - 스스로 강한 혁신가라고 여기는 10개 기업 중 4개는 AI 지원 제품을 통한 매출이 15% 이상이라고 응답
- 플랫폼과 생태계는 다른 기업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와 협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다자 솔루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역할을 담당
  - 강한 혁신가들은 약한 혁신가들보다 이러한 요인들이 3~5년 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영역을 적극적으로 타깃팅
  - 강한 혁신가들은 또한 외부 혁신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75%는 인큐베이트 이용, 81%는 학술 파트너십 활용, 83%는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 관계를 구축
- 지멘스, 보잉 등을 포함한 다수 산업용 제품 기업들은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및 제조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예측 유지보수 부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
  - 생태계는 기초기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파트너를 활용하는데 크게 기여

▶ 자료 : 보스턴컨설팅그룹, 2019년 혁신적 기업 조사 결과 발표(Innovation in 2019-The Most Innovative Companies 2019), BCG, 2019.3



#### 14 OECD, 중소기업의 다양한 대체 자금조달 수단 확대

- '17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잔액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국가별로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
  - 중소득 국가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대출 잔액 증가율이 5%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2.2% 증가하였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
  - 대부분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유럽 국가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9% 감소
- 팩토링(factoring), 리스 및 할부구매, 사모대출 등 다양한 대체 자금조달 수단들이 확대
  - 팩토링(factoring) 조성 금액은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수요로 인해 전년도와 비슷하게 3.3% 증가
  - 리스 및 할부 구매(hire purchase) 활동은 34개국 중 26개국에서 6.2% 증가
  - 사모대출(private debt)은 글로벌 전체로는 10%, 특히 유럽에서는 27% 증가
  - 벤처캐피탈 투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상장(listings) 수도 지속 증가
  -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체 자금조달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국가에서 강하게 증가
- 무형자산이 중소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특히 대출에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
  - 이는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인데, 최근 OECD 및 신흥국가 모두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
  - 최근 연구에 의하면 EU 국가의 무형자산 기여는 전체적인 생산성,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 파급효과, 벤처캐피탈 활동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유
- 중소기업 금융은 여전히 정부 아젠다 중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용보증, 지불지연 시정, 핀테크 지원, 벤처캐피탈 지원 등의 정책이 확대

▶ 자료 : OECD, 2019 중소기업 및 기업가 자금조달 현황(Financing SMEs and Entrepreneurs 2019 : An OECD Scoreboard), OECD, 2019.4

III

주요일정



① MONEY20/20 EUROPE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2019.6.3.~5)



- 본 컨퍼런스는 미래 금융 서비스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12개의 최신 테마를 바탕으로 350여 명의 강사들이 진행하는 다수의 기조연설, 강연, 패널토론, 케이스 스터디, 워크숍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europe@money2020.com](mailto:europe@money2020.com)
- URL : <https://europe.money2020.com/>

② Startup Grind Europe (영국 런던, 2019.6.6)



- 본 컨퍼런스는 3,000명이 넘는 창업자, 투자자 및 혁신가들이 참석하며 총 세 개의 스테이지에서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A.I.와 핀테크 관련된 주제로 진행되는 다수의 기조연설, 강연,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을 제공
- URL : <https://www.startupgrind.com/europe/>

③ Techsylvania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2019.6.8.~11)



- 나흘간 개최되는 본 행사에서는 엔지니어, 설립자, 투자자, IT업체의 CEO 및 임원이 참석하여, 70개가 넘는 기조연설, 패널토론, 워크숍,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세션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하는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10만 유로를 우승 상금으로 수여하는 스타트업 경연대회(Startup Avalanche) 및 해커톤(Hackathon)을 진행
- URL : <https://techsylvania.com/>

#### 4 Future of Fintech (미국 뉴욕, 2019.6.11.~13)



- 본 컨퍼런스는 전 세계에서 금융업계 종사자, 핀테크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투자자 등이 참석하여, 총 3개의 무대에서 70여 명의 연사가 최신 핀테크 트렌드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며, 유니콘 스타트업,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및 규제 기관과의 일대일 세션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events@cbinsights.com](mailto:events@cbinsights.com)
- URL : <https://events.cbinsights.com/future-of-fintech>

#### 5 Launch Festival Sydney 2019 (호주 시드니, 2019.6.17.~19)



- 본 컨퍼런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로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워크숍, 스타트업 피치 및 강연을 진행하며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 혹은 초청 기회를 우승 상금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회를 마련
- 연락처 : [festival@launch.co](mailto:festival@launch.co)
- URL : <https://www.launchfestivalsydney.com/>

#### 6 Small Business Expo (미국 시카고, 2019.6.20)



- SMALL BUSINESS EXPO®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전시회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
- 연락처 : [clientservices@theshowproducers.com](mailto:clientservices@theshowproducers.com)
- URL : <https://www.thesmallbusinessexpo.com/city/chicago/>

##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Global SME Policy Trend

발 행 처 : 중소기업연구원

발 행 인 : 김 동 열 원장

편집위원 : 전인우 부원장, 김광희·백필규·심우일 수석연구위원 등

주 소 : (0707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전 화 : 02-707-9800, 팩스 : 02-707-9894

홈페이지 : <http://www.kosbi.re.kr>

문 의 처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 02-707-9873

인 쇄 처 :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02-2279-9241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